

KIA, 방망이 살아나니...마운드 무너졌다



LG전서 22일 정해영·23일 조상우 패전 투수 기록
후반기 앞선 화력에도 필승조 방화에 순위싸움 '흔들'

‘호랑이 군단’이 뒷문 고 민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10차전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5-6 패를 기록했다. 앞선 22일 경기에서는 ‘약속의 8회’ 뒤 ‘약망의 9회’를 보내면서 9-7 재역전패를 당했었다.
22일에는 마무리 정해영이, 23일에는 필승조 조상우가 패전 투수가 됐다.
두 경기의 흐름이 비슷했던 만큼 더 충격적인 패배였다.
제임스 네임과 김도현을 내세웠던 KIA는 송승기와 치리노스와의 선발 맞대결에서 판정패했다. 후반 화력싸움에서는 KIA가 앞섰다. KIA는 연달아 후반 ‘빅이닝’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22일에는 고종욱과 한준수의 대타 투임이 적중하면서 8회말 대거 6점을 만들었고, 23일에는 오선우의 동점 스리런으로 7회말 승부를 4-4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정해영이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시즌 5번째 불륜 세이브와 함께 패배를 남겼다. 조

상우는 연장 10회 문보경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패전의 멍에를 썼다.
KIA는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한화에 스윙패를 당하면서 정규시즌 1위 목표를 수정해야 했다. 여기에 2.5경기 차에서 광주를 찾은 2위 LG와의 대결에서도 극적인 흐름을 승리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연달아 쓴 패배를 기록했다.
마무리 정해영의 부진이 뼈아프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10일 한화전에서 KIA는 9회 2-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었다. 정해영이 9회 출격과 함께 연속 안타로 흔들렸고, 결국 문현빈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20일 NC전에서는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시즌 24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과정은 갈잡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도 정해영은 2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진담 세이브를 올렸다.
이어 22일 LG전에서는 3점의 리드를 안고 나섰지만 0.1이닝 4피안타(1피홈런) 4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23일에는 9회를 실점 없이 막았지만 피안타와 볼넷으로 두 명의 주자를 내보냈었다.
올 시즌 44경기에 나온 정해영의 평균자책점은 3.86까지 치솟았다. 이닝당 출루허용율은 1.56, 피안타율은 0.307이 됐다.
여기에 많은 기대를 받고 KIA 불펜에 합류한 조상우까지 같이 흔들리고 있다.
조상우는 올 시즌 48경기 나와 41.1이닝을 소화하면서 4.3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닝당 출루허용율은 1.62. 특히 최근 10경기 평균자책점이 7.04까지 오르면서 위기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필승조의 잇단 방화로 후반기 시작과 함께 KIA 마운드는 위기를 맞았다. 확실한 선발 카드 아담 윌러의 복귀도 늦어지면서 불펜 역할이 커졌지만,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아찔한 이틀을 보낸 정해영과 조상우는 24일 휴식날을 보냈다. KIA는 25일부터 사직으로 가서 3위 롯데와 주말 3연전을 벌여야 한다. 마땅히 불펜에 가세할 전력도 없는 상황. 묘수 없는 KIA는 두 사람의 반등만 바라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필승조가 무너지면 어느 팀이든 분위기가 다운되는 게 사실이다. 지나간 것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길지 생각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필승조가 연달아 패전투수가 되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마무리 정해영은 22일 LG와의 경기에서 3점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전투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국 수영, 세계선수권 ‘금빛’ 도전...결전지 싱가포르로 출격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팀 황선우(왼쪽부터), 김우민, 김영범, 이호준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우민·황선우 세계챔피언 수성 도전...27일부터 경기

세계 수영 변방에서 중심부로 힘차게 진입하는 한국 수영 대표팀이 세계수영연맹(World Aquatics)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장도에 올랐다.
김효열 총감독이 이끄는 수영 경영 대표팀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김 총감독은 출국에 앞서 이번 대회 목표를 세 가지로 짰다.
그는 “우선 황선우와 김우민 선수가 훈련소에 다녀와서 감각적으로 떨어져 있다. 경기 감각을 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범과 김승원 등 유망한 선수들이 국제 경쟁력을 얼마나 보여줄지 확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나가는 학생 선수가 많다. 여자 선수들이 세대교체 중이다. 경험과 기회를 받아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게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국 경영 대표팀은 지난해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와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계영 800m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남자 자유형 400m ‘세계 챔피언’ 김우민(강원도청)과 자유형 200m 우승자 황선우(강원도청)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빛 역성’을 펼치는 것이 목표다.
황선우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부터 꾸준히 시상대에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고 싶다”면서 “계영 800m도 저회기리 열심히 준비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요원이 된 김우민과 황선우는 지난겨울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때 거의 한 달 이상 물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는 올 시즌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김우민은 “선수 생활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다. 이번처럼 길게 물에 안 들어간 건 처음이다. 수영은 하루 이틀만 물에 안 들어가면 감각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하던 게 있으니 금방 돌아왔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초반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다. 3월 대표 선발전까지 힘들었지만, 이후 전지훈련 가고 국가대표선수촌 가서 훈련하니까 괜찮아졌다. 너무 걱정은 안 한다”고 말했다.
도하 대회에서 한국 수영 최초의 계영 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수영은 이번에도 시상대에 올라가는 게 목표다.
김우민과 황선우, 이호준(제주시청) 등 은메달을 합작했던 멤버가 간재한 가운데 19세의 겁 없는 막내 김영범(강원도청)이 메달 향방을 쥐고 있다. 이번 대회 경영 종목은 27일부터 시작한다.
경영 첫날인 27일에는 지난 도하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세계 챔피언 김우민이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그리고 28일에는 황선우의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m 예선과 준결승이 열리고, 하루 뒤인 29일에 결승이 이어진다.
30일에는 황선우와 김영범이 출전하는 남자 자유형 100m 예선과 준결승이 벌어지고, 31일 결승전을 치른다.
남자 대표팀이 2연속 메달을 노리는 계영 800m는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세플러, 올해 상금 260억...캐디도 ‘26억’ 수입

PGA 투어 선수 평균 수입보다 높아

올해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4승을 올린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상금 2천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1920만달러(약 263억8848만원)를 벌어들인 셰플러는 무난하게 3시즌 연속 시즌 상금 2000만달러 수확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산 상금에서도 9099만달러를 찍어 타이거 우즈(미국), 로리 매킴로이(북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9000만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더 놀라운 것은 셰플러의 캐디인 테드 스콧이 캐디 급료로만 PGA 투어 선수 평균 상금을 웃도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다.
골프다이제스트는 24일(한국시간) 스콧이 셰플

러에게 받은 급료가 192만달러(26억3692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PGA 투어 선수 평균 수입 173만달러(23억7719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스콧이 지난해에는 523만8499달러(70억1120만원)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PGA 투어 상금랭킹 20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지난해 셰플러가 무려 7승이나 쓸어 담았고, 특히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2500만달러를 한 번에 손에 넣는 등 6222만8357달러라는 천문학적 상금 수입을 올린 덕분이었다.
셰플러는 앞으로 플레이오프 3개 대회를 더 치를 예정이라서 스콧의 수입은 덩달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